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3

물 흐르는 그대로 가라

[원문] 학도여초불변심(學道如初不變心) 천마만난유성성(千魔萬難愈惺惺) 직척고출허공수(直陟敲出虛空髓) 발각금강자후정(拔脚金剛腦後釘) 돌출안정전체로(突出眼晴全體露) 산하대지시공화(山河大地是空華) - 팔공산 은해사 심검당

[번역] 도를 배우려는 마음 항상 변함이 없고 천만가지 어려움도 깨닫고 깨달았네. 곧고 바른 진리의 진수 허공에서 오고 금강을 뿔아 버리면 항 또한 부러진다. 온몸 나뉘어 맑은 눈으로 앞을 바라보니 산하대지가 바로 허공 꽃이네.

[선행(禪解)] 요즘, 정계의 이슈는 '4대 강강' 살리기와 세종시'이다. 이중에서 '4대 강 살리기'는 자연 유산을 많이 가진 우리 불교계의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연을 되살리고 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왈가왈부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두고 현 정부는 '청계천 복원'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다. 청계천 복원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라진 청계천을 다시 되살리자는 운동이었다. 그야말로 자연 회귀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와는 확연히 반대되는 정책이다. 그나마 자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강을 훼손,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복안이 깊게 깔려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오히려 청계천 복원의 성과를 4대강 살리기에 정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물론 4대강 사업에는 많은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수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여객, 화물선의 이동 기능이 발달하여 관광 사업이 발달할 수 있을 것이며 전체 배수량을 늘려 하천지역의 홍수를 방지하고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 녹지를 조성해 근린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상권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자연이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몇 천 년을 이어온 자연적 형태를 인간이 파괴한다면 그에 대한 재앙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물은 고이지 않고 흘러야만 썩지를 않는다. 만약, 정부가 수량 확보를 위해 보를 설치하면 유속이 느려

져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것은 너무도 뻔하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된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아무 것도 없다. 만약 정부가 수량 확보를 위해 강바닥과, 주변토사를 파내면 생태환경이 파괴되어 되돌릴 수 없는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4대강은 이미 재난시설이 발달하여 홍수피해가 적다. 국지성 호우나, 산간지방의 호우피해가 오히려 극심하다. 그러므로 홍수예방을 4대강 사업의 이유로 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토목사업은 단기적인 일자리창출에 불과하다. 그로인해 발생할 재정 부담을 감안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며 인위적인 녹지조성은 생태환경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자연그대로 놔두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도 좋은 점이다.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만으로 4대강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집'을 태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법(法)의 힘'에서 온다. 법을 한자로 풀이해 보면 '물 수(水)와 갈 거(去)'자다. 이는 물이 흐르

이와 같이 부처님 말씀은 그 어떠한 것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오늘날 정부는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기우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이 길었다. 오늘날의 주련 여행은 팔공산 은해사이다. 신라 제41대 헌덕왕 초년에 해철 국사가 창건한 절로 처음에는 그 지명을 따 해안사(海眼寺)라 불렀다. 고려 원종 11년에 흥진 국사가 중건했으며 조선 명종 1년에 천고 대사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 중창한 뒤 인종의 태실을 봉하고 이름을 은해사로 고쳤다고 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여러 번의 화재로 사지(寺誌)는 물론 성보가 불타오며 6·25 때는 국민방위군 사건의 대 잡곡이 벌어진 본거지가 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중창불사를 일으켜 당우를 새로 지어 대가람의 면모를 일신시킨 것이다. 그럼 심검당의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학도여초불변심 천마만난유성성: 도를 배우려는 마음, 항상 변함이 없고 천만가지 어려움도 깨닫고 깨달았네.'

여기에서 심검당이란 '마음의 칼'을 뜻한다. 즉 이곳은 납자나 선객(禪客)들이 찾아 치열한 구도정신으로 자신의 번뇌와 망상을 배어 내고 진여(眞如)의 실상(實相)을 찾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즉 도를 배우려고 하면

항상 처음과 끝의 마음이 한결같아야 하고 천만가지의 슬한 어려움도 담고 일어서야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경우이다.

'직척고출허공수 발각금강자후정: 곧고 바른 진리의 진수는 허공에서 오고 금강을 뿔아 버리면 창 또한 부러진다.'

도를 배우는 데는 무엇보다 초발심이 중요하다. 그 마음으로 도를 닦게 되면 진리는 허공중의 진수에서 오지만 그러한 진리의 금강을 뿔아 버리고 나면 견고한 창마저 부러진다는 뜻이다.

'돌출안정전체로 산하대지시공화: 온몸 나뉘어 맑은 눈으로 앞을 바라보니 산하대지가 바로 허공 꽃이네'

그런 자리에서 맑은 눈으로 법계를 바라보면 산하대지 모두가 허공중의 꽃이라는 뜻이다. 허공중의 꽃이란 모든 형상의 본질은 그저 헛된 망념으로 보이는 것일 뿐 본래 실체는 없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그러므로 은해사의 주련은 선객이 초발심을 가지고 선정(禪定)에 들어 깨우치게 되면 모든 형상의 덧없음을 보게 된다는 뜻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43

움직임은 마음의 작용일뿐

[원문] 動不是心 心不是動 動本無心 心本無動 動不離心 心不離動 動無心離 心無動離 動是心用 用是心動 動即心用 用即心動 不動不用 用體本空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는 본래 마음이 없고 마음에는 본래 움직임이 없느니라. 움직임을 마음을 벗어날 수 없고 마음은 움직임을 벗어날 수 없다. 떠난다, 떠난다' 하는 생각도 없으며 '움직인다, 움직인다' 하는 생각도 없느니라. 이것은 마음의 용(用)이 작용한 것이고 마음의 움직임이 움직인 것이니, 마음의 '용'으로 작용하는 것이요 마음의 움직임으로 움직인 것이니라. 움직임과 작용이 없으니 작용의 본체는 본래 공이나라.

[해설]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는 본래 마음이 없고 마음에는 본래 움직임이 없느니라.'

이 부분은 마음의 '체(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근본실상인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는 것이기에, 본래 마음은 움직였다고 해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근본실상인 진리는 부처님께서도 말씀 못하셨습니까. 그 자리는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한 마디도 설하지 않았다"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래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움직이는 것은 마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것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생기고 멸하는 것이 있지만, 본래 물질이 아닌 자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실상에서는 '마음'이라고 해도 맞지 않고 '부처'라고 해도 맞지 않기 때문에 움직였다고 해도 움직인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움직임은 마음을 벗어날 수 없고 마음은 움직임을 벗어날 수 없다.'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니,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움직이는 것은 모두 마음에서 한다는 얘깁니다. "떠난다, 떠난다 하는 생각도 없으며 움직인다, 움직인다 하는 생각도 없느니라.'

어머니 태중에서 나와 60-70년을 살았어도 흥겨운 음악이 나오면 덩실덩실 춤을 추며 "몸은 늙

었지만, 마음은 청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본래 마음은 어머니 태중에서 나왔을 때나 죽을 때나 항상 그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에 늙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모양이 있으니 세월이 흐르면 늙고 변화하지만, 참나의 마음은 모양이 없으므로 늙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몸이 늙으니 스스로 늙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천 년을 살아도 마음은 항상 그 자리인 것입니다.

개 또한 그렇습니다. 개의 몸을 뒤집어엿을 뿐 사람의 마음과 똑 같은 겁니다. 짐승들도 우리와 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구조만 다른 것입니다. 마음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등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자의 몸을 받으면 마음에서 여자니까 약하다는 생각을 할 뿐이지, 사실 마음자리에서는 약하고 강한 것이 없습니다. 짐승들도 우리와

같이 좋은, 나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능이 다를 뿐이지 본래 마음에서는 개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똑 같은 자리입니다. 몇 백년을 살았어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마음에서는 물질이 아니기에 갔다고 해도 간 것이 아닙니다. 천 년을 살았어도, 다시 태어나 아끼 몸을 받았어도 항상 그 자리입니다. 조금도 오고 감이 없는 자리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마음의 작용이 작용한 것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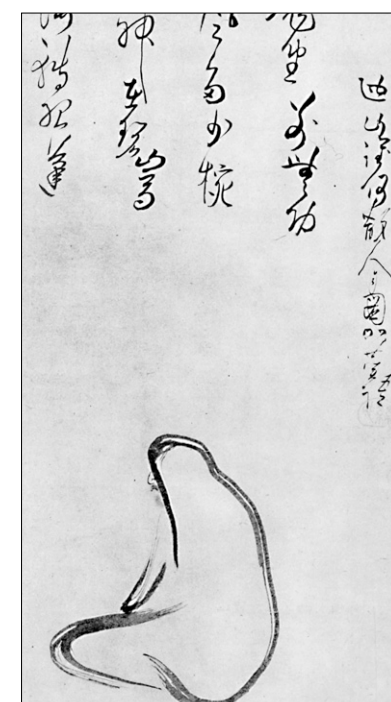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단지 마음의 작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마음이 하는 것이지만, 진짜 나는 본 것도 아니고 들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나는 물질이 아니라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

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지, 본래 마음에서는 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움직인 것이니, 마음의 용(用)으로 작용하는 것이요 마음의 움직임으로 움직인 것이니라. 움직임과 작용이 없으니 용의 본체는 본래 공이나라.'

마음의 '용'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본래 마음에서는 작용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공(空)하다는 얘기는 본래 마음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본래 마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생사(生死)가 없는 것이고, 오고 감이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고 듣는 것은 마음이 작용한 한 것이지, 참나(本래면목)는 움직인 게 아닙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일본 카마쿠리(鎌倉, 1185~1333)시대, 좌선 달마(적자 미상).

도를 배우려면 항상 처음과 끝이 같아야

맑은 눈으로 법계 바라보면 모두가 허공중의 꽃

는 대로 그대로 가라는 뜻을 담고 있다. 법은 그래서 위대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러한 법을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법을 역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4대강 살리기는 정부의 공약인 대운하건설의 일환에 불과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발상인가. 이 대통령은 퇴임 전 기념비적인 사업을 남기고자 하는 욕심에 불과하고 어쩌면 기업수익을 위해 국가재원을 불필요하게 퍼 부는 정책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 <유교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으나 얕은 물은 졸졸 소리가 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하며, 편안함과 즐거움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불안하고 번덕스럽다. 지혜로운 이는 항상 감사할 줄 알아 스스로를 살펴서 지족을 알아 즐기는 참된 재산을 가진 부자이다. 또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거든 마땅히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족함을 아는 바로 그 자리가 즐겁고 안온한 곳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맨 땅에 누워 있어도 편안하고 즐겁지만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당에 있어도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족함을 알지 못하면 항상 욕망에 끌려 다니게 되고 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긴다."고 되어 있다.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진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진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 벌여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땀이 주무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컵물이 아니라 물핀 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분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갈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물질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

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 인데, 나의 의식이 생생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 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를 가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영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수 장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나 2만원, 매선침 20만원 증정)
■ 전수 과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수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토요일 오전 종강
■ 저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나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영계의 메시지 -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천의선도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하라는 천명을 받고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암 환자 자연치유법 특별상담

삼봉(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